

## 2014 4.06 사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에제키엘 37,12 ≡-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제 2 독서 : 로마서 8,8-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복 음 : 요한 1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1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의 신앙과 마리아, 마르타의 신앙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께 그들과 같은 신앙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서 거의 모든 지배층들이 유배지로 끌려갔고, 이제 본토에는 이스라엘을 제어 할 수 없는 쓸모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며,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들이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고 있던 성전마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 있을때에,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유배지로 보내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67년경입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속에서 인간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당치도 않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습니다. 또한 그 희망으로 삶의 기운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잘 읽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때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수천 수만의 병력도, 수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군의 병력도, 수천 수만 달러의 돈도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 쓸데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말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수많은 병력보다도 수천 수백만 달러의 돈보다도 더 큰 힘을 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라자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타의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만약 예수님께서 곁에만 주셨더라면, 그들의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야속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야속함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컸다는 사실에 주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현세상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의 삶속에서 우리안에도 이런 신앙이 존재하다면, 우리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 표징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직접 체험을 하였고,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도 마더 데레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전기를 읽으신 분들은 그분의 신앙의 삶속에서 하느님의 많은 표징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것 없는 조그만 체구의 여인이 수천 수만의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수 있게 해준 힘, 그것은 바로 믿음 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는 빛이 안 보입니다. 잡을 지푸라기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당안의 성상들이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성상들은 그냥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의 삶이 어떠 하였는가를 알아보고, 그 분들께 배우고, 그 분들을 따라 가라는 의미로 성상들이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의 성상에 대하여 비난들을 하지요. 사실은 **성상과 성화는** 그냥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그 성상과 성화를 보며 그 분들의 삶과, 또한 그 벽화에 그려져있는 뜻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책**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성상과 성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잘 모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 2 독서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의 말씀을 한국어로 다시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왜 들 수가 없습니까? 왜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까? 문제는 육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님이요, 귀머거리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느낌에 너무 충실 하여서 정신적인 세계에 대하여 보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느끼기를 거부한 결과로 하느님 사랑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우리 한국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가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모신다는 표현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안 모시고는 내 뜻이라는 것, 우리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우리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완벽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이야기는 죄를 우리가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노력할 때에, 그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도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처럼 금나와라 똑딱! 은나와라 똑딱!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좇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믿는 예루살렘 그 천상의 삶도 금나와라, 은나와라 똑딱! 하는 식의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노력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의지로써 주님의 영을 우리안에 모시기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죽기전에, 짓고 있는 죄들을 멀리멀리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 죄를 멀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분명히 나의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순시기동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를 이 미사중에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12 ~-14

12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13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30(129),1-2.3-4.5 와 6 ~-7 ~.7 ~-8(◎ 7 ~-8)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8-11

형제 여러분,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45

<또는 11,3-7.17.20-27.33 ~-45>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1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9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1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그제야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16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님께서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18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30 예수님께서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32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밟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